

# RIA 흥행에도 자금 이동은 아직... 대형 증권사만 웃었다

RIA 계좌 5.7만개 넘어서며 순항  
미주 보관금액 줄며 자금이동 조짐  
자금 절반 이상이 대형사에 집중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RIA 확산 초기, 자금은 대형 증권사로 빠르게 유입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방향성과 투자 판단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입 자금이 일부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제도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된 RIA 계좌는 전날 기준 5만 7000개를 넘어섰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1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초기 흥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절세형 상품인 ISA가 1만 계좌 달성까지 한 달 이상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빠른 확산 속도다.

자금 흐름에서도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월 말 1680억달러에서 2월 말 1639억달러, 3월 말 1465억달러로 감소하며 해외 투자 자금 이탈 흐름이 감지된다.

그러나 계좌 증가 속도에 비해 실제 자금 유입 규모는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RIA를 통해 유입된 금액은 약 3300억원으로, 해외주식 보유액 약 220조원 대비 0.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월 말 1680억달러에서 2월 말 1639억달러, 3월 말 1465억달러로 감소해 자금 흐름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RIA 덕분에 일어난 본격적

인 자금 이동으로 보기에 아직 이르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초기 자금은 특정 증권사로 집중되고 있다. 자기자본 상위 대형 증권사 3곳의 RIA 유입액은 약 1800억원으로, 전체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 증가와 달리 실제 자금은 대형사로 쏠리며 시장 내 양극화 구조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증권사들은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현금성 혜택 등을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며 초기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기존 해외주식 투자 고객 기반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점유율, 마케팅 역량이 결합되면서 자금이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구조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사실상 관망에 가까운 분위기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RIA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결국 대형 증권사들의 '행복한 고민'에 가깝다"며 "고객 기반과 마케팅

역력이 다른 상황에서 자금 쏠림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RIA를 통한 자금 이동이 단기간에 본격화되기도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형 증권사 내부에서도 자금 이동 속도는 기대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계좌 개설 속도도 점점 더뎠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계좌 개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금이 한 번에 이동하는 흐름은 아니다"며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 기간 국내 자산에 묶어야 하는 구조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확신이 있어야 본격적인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관망 심리가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미래에셋, 100대 브랜드 13위... 경쟁력 입증

지난해보다 브랜드 순위 4계단 올라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미래에셋증권이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디지털 투자 플랫폼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가 상승하며, 자산관리부터 모바일 투자까지 전방위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종합 1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자체 개발한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 산업군 브랜드를 종합 평가해 상위 100개 순위를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미래에셋대우

출범 후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하며 신뢰받는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세계 11개 지역에 진출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투자전문회사로, 국내외 고객자산(AUM) 약 718조 원(올해 2월 말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은 2025년 12월부터 3달 연속 증권사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업계 1위를 기록하며 고객 중심 투자 환경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주관하는 '유로머니 어워드(Euromoney Awards for Excellence)'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증권사'로 선정됐다. 또 글로벌 파이낸스(Global Finance)가 선정하는 '베스트 프라이빗뱅크 어

워드(Best Private Bank Awards)'에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프라이빗뱅크'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는 전 업권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미래에셋3.0' 비전을 기반으로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융합되는 차세대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토론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및 결제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월렛을 통해 글로벌 웹3.0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Client First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감독원 포스터.

## 금감원, 보이스피싱 '진짜 목소리' 공개

3959건 분석해 반복 사기범 특정  
112·1332 통해 사실 확인 당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인데요. 본인 명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처럼 실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인이 범행에 연루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는 식으로 상황을 구체화한 뒤,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사기범들의 '진짜 목소리'를 공개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1일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제보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 3959건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기범 7명의 음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음성은 10회 이상 반복 제보된 사례로, 국과수의 성문 분석을 통해 동일 인물로 확인된 목소리다. 성문 분석은 사람마다 다른 음성 특징을 추출해 지문처럼 식별하는 방식이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찰·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한다. 이후 '소환장 발부', '대면조사' 등 전문 용어로 압

박하며 전화상 '약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통화하라", "통화가 녹음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변의 도움이나 간섭을 차단시키고,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계좌 정보와 금융자산 현황을 요구한다. 나아가 법원·검찰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로 자산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앱 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화를 즉시 종료한 뒤,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자금 이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역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조직 1·2부로 개편

커버리지 종목 수 400개까지 확대

신한투자증권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리서치본부 조직 확대개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개편은 기존 단일 부서로 구성됐던 기업분석부를 기업분석 1부와 기업분석 2부로 재편하고, 기업분석 1부에 혁신성장팀을 꾸려 생산적 금융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 그리고 해외기업 분석 강화 등의 미션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도 국내 최대 커버리지를 자랑하던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커버리지 종목 수를 코스닥까지 포함해 4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서치본부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한국 주요 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한 블루북을 지난 16일 발간했다.

확대개편 된 기업분석1부의 혁신성장팀에서는 코스닥 및 비상장 유망 투자기업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분석력 강화를 위해 2~3차 애널리스트 집중 배치 및 외부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기업분석1부서장은 "혁신성장팀을 중심으로 코스닥 벤처,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BDC투자대상 기업, 비상장 유망투자기업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기존 코스닥 기업들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양과 질 모두를 충족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한양증권, 조직문화 혁신 전사 드레스코드 자율화

한양증권은 이날부터 전사 드레스코드 자율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정 변화를 넘어, 최근 한양증권이 추진해 온 전사적 체질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반영한 것이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6월 대주주 변경 이후 경영 전반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리스크 통제에 기반한 선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체질 개선에 집중해왔다.

한양증권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하은 기자